

이슬람 국가로
오해되는 터키

터키 정부가 유럽 인권법원의 판결을 실행해 주민등록증의 종교란이 폐지되고 터키에서 종교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보장되게 하소서

터키는 정치와 종교가 헌법상 구별된 공화국(Republic of Turkey)이다. 터키는 종교부 장관이 이슬람뿐 아니라 유대교, 기독교 및 기타 종교적 소수 그룹들을 관장하지만 인구의 절대 다수(98% 이상)가 무슬림이고 집권당인 AKP가 이슬람 운동의 부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이슬람 국가로 오해된다. 주민등록증에는 자신의 종교를 기재하는 란이 있어서 비순니파 무슬림들과 비무슬림들에게 종교적 차별과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6년부터 종교란을 비워둘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지만 종교적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2009년 2월 유럽 인권법원은 이미 터키 신분증의 종교란 자체를 폐지하도록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켜지지 않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몰수 재산 반환

터키의 소수 기독교인인 그리스인과 아르메니아인들 사이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 투르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소서

2011년 8월 27일 에르도안 총리는 각 종교 지도자들 및 160개의 소수 그룹 지도자들을 초청한 라마단 저녁식사 자리에서 정부가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유대인들의 몰수된 재산을 돌려주고 이미 매각된 재산에 대해서는 보상한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소수 종교 공동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터키 정부는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수 공동체들이 12개월 안에 국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또 다른 법령을 발표했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등 어려움이 많아 실제로 한 건도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터키는 1910년 이후 비이슬람 종교에 대해 탄압을 가함으로써 많은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유대인들이 터키를 떠나거나 소수만 남게 되었다.

13년 만에
여당의 과반수
확보 실패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터키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터키 성도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딤후 2:2) 하소서

터키 현재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이 이끄는 정의개발당(AKP)은 신 오스만 모델(팍스 투르카나)을 구현하고자 이슬람환원주의 운동, 국내 정치경제 발전, 글로벌 리더십 도전 등을 추진해왔다. AKP는 세 차례 총선(2002, 2007, 2011)과 지방자치장 선거(2014)에서 승리하면서 신 이슬람 환원주의의 행진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2015년 6월 7일 총선거에서 AKP는 정당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단독정부 수립이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AKP는 45일 안에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고, 3개 야당이 모두 이것을 거부할 경우 조기 총선을 치러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선거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쿠르드계 정당인 인민민주당(HDP)이 13.1%의 득표로 원내 진출권을 획득했고, 여성 의원 97명(역대 총선 중 최고치)이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EU 가입 -
줄 당기기
56년

터키의 EU 가입 협상 과정을 통해 EU가 요구하는 소수 종교 그룹들에 대한 인권보호가 이루어지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소서

2004년 12월 유럽연합 가입 협상국 지정, 2005년 10월 3일 협상 시작, 프랑스 등의 유럽헌법 부결 및 오스트리아의 특별회원국 지위 부여 등 악재를 극복하면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온 터키의 EU 가입건은 최근 지지 부진한 상태였다. 2013년 게지공원 시위를 시점으로 이어진 전국적 시위로 인해 인권탄압, 언론 통제의 문제가 야기되면서 터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4년 6월 6일에는 유럽 인권재판소가 1974년 터키의 북키프로스 침공시 피해를 입은 그리스인들에게 6천만 유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터키와 EU의 관계는 냉각상태에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계의 주요 투자국들이 터키로 투자행렬을 잇고 있고 EU 내에 터키 가입이 EU의 경제위기 극복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국가들이 있다.

터키의 경제 성장

터키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복음 전도의 문과 기회들이 더 열어지게 하소서

지난 10여 년간 터키의 경제는 괄목할만하게 성장했고 세계 17대, 유럽 내 7대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G20의 창립 회원국이 되었다. 지난 50년간 평균 4.7%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러시아, 인도, 중국 등과 함께 세계의 고속성장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집권당 AKP의 에르도안 전 총리가 대통령이 되면서 현 터키 정부의 인권탄압, 언론통제, 부정부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로 국내정세가 불안정하고, 4년이 넘는 시리아 내전, 중동지역에서의 ISIS의 힘의 성장 등 주변 국가들의 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터키 리라가 급락하고 2014년 경제성장률이 2.9%에 그치게 되었다.

터키 경제에서 풀어야 할 숙제

GAP 개발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어 낙후된 동부, 남동부 지역의 실업난이 해소되고 빈부격차가 감소되게 하소서

터키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DP(국내 총생산)의 32%를 넘는 지하경제(OECD 국가 중 최대)와 가계부채의 급증(OECD 국가 중 2위), 국가부채의 급증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다. 터키의 부는 이스탄불, 이즈미르, 앙카라 3대 도시에 편중되어 있고(전체 부의 64%) 농촌과 다른 도시의 경제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업률은 2013년까지 떨어지는 듯 했으나 2014년부터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토개발 계획인 GAP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것은 가지안텡, 산르우르파 및 디야르바크르를 중심으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수력 발전용 댐 18개와 수백 킬로미터의 관개수로 및 운하 건설을 통해 터키 내 가장 낙후된 동부와 남동부 9개 주를 개발하기 위한 종합개발 계획이다.

삶의 질 악화

낮은 삶의 질, 가정과 사회 문제 속에서 도리어 영적 갈급함이 일어나서 더 많은 무슬림들이 복음에 마음을 열게 하소서

2014년 국제노동조합 총연맹이 세계 139개 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한 '세계노동자권리지수' 보고서에서 터키는 5등급(노동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고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지 못함)을 받았다. 2011년 OECD 발표에 따르면 터키 가계 부채증가율이 10.8%로 2위를 차지했고 행복지수는 회원 34개 국가 중에서 33위를 차지했다. 현재 터키 정부는 끊임없이 건축과 도로 공사를 통해 도시를 개발하고 있지만 급격한 빈부격차와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이혼율이 늘어나면서 노숙자들과 거리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교육과 탈선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창의적인 사역이 개발되고, 젊은이들에게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문화가 전파되게 하소서

터키는 29세까지의 젊은 층이 전체 인구의 45%(0-14세는 17.5%, 15-29세는 27.5%)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연령의 인구가 많이 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매우 빈약하다. 터키는 중동의 어느 국가보다도 교육열이 높지만 고등학교 졸업생 중 약 30%만이 대학에 진학하고 나머지는 군입대하거나 사회로 진출한다. 부유층 자녀가 아닌 대다수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일찍 성인문화를 접하고 있고, 청소년들 사이에 마약중독이 급속히 늘어가고 있다. 2012년 교원 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2004년 대비 마약을 복용하는 학생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조사대상 학생 전체의 2.9%가 마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혼 허용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여성의 권리가 법적으로도 터키에서
보호받게 하소서

지난 2001년 남녀평등권의 준수 원칙 하에 개정된 터키의 가족법에서는 일부일처제 보장, 호주제 폐지, 부부간 재산권의 공평성 유지 등의 조항을 통해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켜왔다. 또한 가족법 143조와 형법 230조에서는 혼인증서가 없는 종교 혼인(이맘의 권한 아래 집행됨)을 금지시켜 왔다. 그러나 2015년 5월 29일 터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투표 결과 12:4로 종교혼 허용이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종교혼이 결정됨으로 인해 이맘의 허락이 있으면 미성년자라도 조혼이 가능해지고, 혼인증서 없는 결혼으로 인해 여성들의 재산권 피해가 심화되며 남녀 평등권이 와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명예살인

터키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세워져 명예살인의 관습이 없어지고
억압 속에 있는 여성들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슬람권에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정조를 잃은 여성을 다른 가족이 살해하는 명예살인의 관습이 있다. 여성이 성폭력을 당하거나 집안이 정해진 혼처를 거절할 경우에도 공공연히 명예살인이 일어나고 있다. 자주 일어나고 있는 명예살인을 터키 정부가 금지하자 이제는 여성에게 자살을 강요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 명예살인은 주로 낙후된 지역에서 발생했었지만 최근에는 수도 이스탄불 등 도시로까지 번지고 있다. 2014년 터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스탄불에서 1주에 1명 꼴로 명예살인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대 소수 종족
쿠르드족

터키와 쿠르드인들과의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쿠르드어 복음 방송, 쿠르드어 신구약 성경 완역 등 쿠르드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가 활발히 일어나게 하소서

쿠르드인은 비아랍권에서 최초로 이슬람으로 집단 개종한 고대 메대인의 후손으로 인도유럽 인종에 속한다. 전세계에서 나라가 없는 민족 중 최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터키에만도 최소 1천 3백만 명이 살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터키 정부군과 쿠르드인 노동자당(PKK) 간에 많은 충돌이 있어 약 4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터키 남동부와 동부지역의 1천여 개의 마을이 사라지는 비극이 있었다. 지난 2006년도 PKK 지도자 외잘란이 체포된 이후 터키 정부와의 거듭된 협상 결과 2013년 5월부터 쿠르드 군인들이 시리아와 북이라크로 철수를 시작했다. 그러나 2014년 10월, 터키 정부가 평화안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수가 중단되었고 아직까지 평화협상은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

터키의
소수 종족과
마르딘
채널 47

터키인과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수리아인 간에 온전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소수 종족들과 난민들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터키에는 주로 남동부 빈필 지역을 중심으로 고유 언어와 역사, 문화를 지니고 있는 자자인, 흑해 연안에 살고 있는 라즈인, 위그루인,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수리아인, 유대인, 체르케스인, 우즈베크인, 무슬림 그루지아인 등 소수의 여러 종족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다. 쿠르드인을 제외하고 이들은 정치적으로 터키 정부와 갈등은 없었지만 1차 대전 전후로 일어난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수리아인 성도 대학살 사건으로 인해 역사적 후유증이 남아 있다. 또한 최근 시리아 내전과 ISIS의 공격으로 시리아인, 이라크인 난민 약 2백만 명이 터키에 와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4월부터 터키 동남부 마르딘에서 채널 47이 4개의 언어(터키어, 쿠르드어, 아랍어, 수리아어)로 방송을 시작하는 등 미미하게나마 소수 민족들을 향한 관용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개신교
선교 역사와
현황

터키 81개 주 모두에 건물 교회가 세워지고 터키 모든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터키에서 개신교 선교는 19세기 초반에 시작되었다. 19세기 중반에 아르메니아인과 수리아인 개신교회들이 생겨나고 투르크인 무슬림들 가운데 성도들이 생겨나는 등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해 무슬림 지도자들이 압력을 가하고, 그리스의 터키 침공, 아르메니아인 독립전쟁 등의 역사적 사건으로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수리아인 기독교인들이 터키를 떠나면서 20세기 초에 개신교회는 거의 소멸되었다. 그러다 1960년대 초반에 터키 선교가 재개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2015년 현재 터키 전역에 약 6천여 명의 개신교 성도들이 있고 공식적으로 125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 터키 81개 주 중에서 지속적으로 건물 교회와 가정교회가 개척되고 있다.

말라티아
순교사건

말라티아 순교사건 재판이 속히 종결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며 순교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말라티아 교회를 통해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2007년 4월 18일 터키 남동부 말라티아에서 민족주의 무슬림 청년 5명에 의해 독일인 선교사 킬만 게스케, 터키인 목사 네자티 아이든, 터키인 형제 우르 육셀이 살해당하는 순교사건이 있었다. 현재 살해 용의자 5명은 가석방되어 가택연금된 상태이고, 사건의 배후에 극단적 민족주의자들과 퇴역장성이 개입된 사건임이 드러나고 있다. 말라티아 순교사건은 그동안 3번 판사와 검사들이 바뀌면서 8년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4월 18일에는 말라티아에 처음으로 건물교회가 세워지고 헌당예배를 드렸다. 말라티아 교회에는 30여 명의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으며, 특별히 청각 장애우 성도들 사이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4+4+4
신 교육제도,
그후 3년

신 교육제도로 인해 이슬람 종교교육 분야가 강화되었는데, 이것이 개선되고 터키에서 기독교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소서

지난 2012년 9월 터키 정부는 4(초등)+4(중등)+4(고등)=12년 학제로 바꾸면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고 의무교육 기한을 12년으로 늘였다. 또한 고등학교 4년은 비정규 교육수단(개방고교)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하며, 이슬람 교육의 경우 5학년부터 이슬람 종교학교(이맘 하티프)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 교육제도 이후 고등학교 4년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열리면서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수가 늘어났고, 대신 이슬람 종교학교 등록자의 수가 급증했다. 이슬람 종교학교의 경우 2012년 694개였던 것이 2014년 현재 1391개로 늘어났고, 이슬람 종교학교 학생이 2014년 현재 47만 4천 96명이 되었다. (전체 학생 540만 명)

이슬람 종교적
문화와 언론

터키 내에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사라지고, 방송 사역을 통해 많은 무슬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터키인들은 이슬람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며 터키인은 무슬림이라는 인식을 가져왔다. 아타투르크(터키 초대 대통령)가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는 중요한 정책들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터키인들 사이에는 터키인과 무슬림을 동일시하는 이슬람 종교 문화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슬람이 아닌 기독교의 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일부 언론들의 경우 사실과 전혀 무관한 사건들을 연결시켜 기독교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터키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한 복음전파가 일어나고 있다. 앙카라의 라디오 쉐마, 이스탄불의 라디오 빛에서 기독교 방송을 하고 있으며, 터키의 가장 대중적인 위성방송 Türksat 4A에서 2015년부터 기독교 위성방송 SAT 7의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터키 이슬람의 해외 포교 현황

이슬람 세계화에 끼친 터키인의 영향

터키인 무슬림 포교자들이 진출한 각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현실을 인식하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아랍인 중심이었던 이슬람을 세계화시킨 것은 중앙아시아에서 지중해 세계로 진출한 터키인들의 두 제국(셀축, 오스만) 때문이었다. 특히 오스만제국은 기독교권 발칸 반도의 여러 국가들을 점령하면서 현지인들을 무슬림으로 개종시켜 놓았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소련 멸망 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무너진 모스크를 재건하고 무슬림 포교자들을 파송해왔다. 또한 터키 내 이슬람 계열의 일부 기업들은 발칸 반도와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등의 해외 터키인들에게 종교 교육을 시키고 이맘(이슬람 지도자)을 파송하고 있다. 2004년에는 종교부 장관이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하디스들을 통합하여 이슬람의 세계화를 시도하는 하디스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국내 및 해외 이슬람 학자들에게 대대적 지원을 약속하고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한국 이슬람 포교 현황

한국 교회가 한국 내 이슬람 포교 전략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깨어 기도하며 무슬림들에게 복음의 생명과 빛을 증거하게 하소서

2011년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무슬림은 9만 2천 59명, 한국에 정착한 무슬림은 4만 5천 명 정도이다. 무슬림으로 개종한 한국인도 2007년 말 이미 6만 5천 명을 넘어섰다. 한국에서는 아랍어, 터키어, 이란어 등의 언어를 통한 문화 교류와 문화원을 통해 아랍 문화와 터키 문화를 자연스럽게 소개하면서 포교가 이뤄지고 있다. 근래에는 대학 내 무슬림 포교자들과 개종한 한국인 교수들이 지식층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터키 이슬람계가 포교의 일환으로 서울 양재동에 무지개 국제학교(유치원-중학교 과정)를 세웠다. 한국인 여성과 무슬림 남성간의 국제결혼을 통해 관계 중심의 포교도 이뤄지고 있다. 이슬람 측에서 볼 때 한국은 이슬람의 포교 전략이 상당히 성과를 거둔 국가이다.

마르마라해 권역



도시선교를 위한 전략이 잘 개발되고 이것을 위한 사역자와 단체들이 잘 협력하게 하소서

개관

사도행전의 비두니아, 드로아(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본 지역)가 이 권역에 속한다. 터키의 7대 권역 중 경제 수준이 가장 높고 터키 전체 인구의 약 30%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터키에서 유일하게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걸친 11개 주로 구성된 권역이다. 아시아 대륙(이스탄불, 부르사, 코자엘리)의 공단과 상업지역은 터키 전역에서 끊임없이 이주민이 밀려오고 있고, 도시빈민지역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 유럽 대륙(에디르네, 테키르다아, 클크랄레리)은 터키 전체 해바라기씨 제품의 73%, 옥수수의 30%를 생산하는 주요한 농업지역이다.

부르사와 기타 주들

부르사, 차낙칼레, 테키르다아에 세워진 교회들이 영적으로 부흥하여 주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부르사는 오스만제국의 탄생지이자 첫 수도였다. 권역 내 두 번째로 큰 도시(인구 약 2백만 명)로서 적극적인 공단 유치와 산업 투자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다. 울루다아 산의 뛰어난 경관으로 관광업이 발달했고, 울루다아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도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슬람 중심지 중 한곳이기도 하며 무슬림 지도자들의 유명한 무덤들이 있다. 부르사개신교회(담임: 이스마일 쿠락치올루 목사)를 중심으로 성도와 사역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한편, **차낙칼레**에는 앙카라 쿠르트루쉬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테키르다아**에는 이스탄불 아나돌루 개신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 외 **빌레직**에는 교회, 성도, 사역자들이 없다. **크룩랄레리**에는 성도는 있지만 교회와 사역자들이 없다. **사카리아**에도 교회가 없다.

흑해 권역



개관

강한 민족주의와 이슬람, 물질주의의 영향 가운데 있는 지역 주민들의 영적 어두움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사도행전의 본도(아골라의 고향)가 이 권역에 속한다. 터키 전체 인구의 12%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서부의 볼루에서 동부의 아르트빈까지 이르는 18개 주로 구성되어 있다. 강수량이 터키에서 가장 많고 차와 개암열매 재배로 유명하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많이 들어서서 그리스인들과 아르메니아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이다. 현재는 인근 중앙아나톨루 권역과 마르마라해 권역으로 계속 인구가 유출되면서 시골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터키 내에서 가장 민족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트라브존과 기타 주들

가정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고 성도와 사역자들 가운데 영적인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트라브존은 흑해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러시아와 남카프카즈와의 무역으로 급성장해 왔다(인구 78만 명). 그러나 최근에는 인구가 유출되면서 성장이 정체된 상태이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이 지역에 그리스인과 아르메니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복음주의 운동이 있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지금은 두 공동체 모두 흩어졌다. 현재는 가정교회가 세워져 있고, 몇몇 사역자 가정들이 이 지역을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닫혀져 있다. 한편, **리제**에는 가정교회가 있고, **오르두**에는 최근 삼순 아가페교회가 교회를 개척했으며, **카스타모누**에는 국제교회가 세워졌다. 그 외 **존굴닥, 뒤즈제, 초룸, 볼루, 바르튼, 카라뵝, 시놉, 아마시아, 토캣, 기레순, 규뮤쉬하네, 바이부르트, 아르트빈**에는 교회가 없다.

에게해 권역



에게해 권역 전역에서 더 활발하게 교회 개척운동이 진행되게 하소서

개관

사도행전의 무시아 일부 지역과 아시아에 해당하는 권역이다. 터키 전체 인구의 13%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8개 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중심 도시인 이즈미르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주변의 비옥한 농업지역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는 편이다. 이즈미르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 (토르발르, 아이라, 디킬리, 메네멘 등)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방문 전도 사역이 지속되면서 에게해권 전역으로 복음의 열매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데니즐리와 아이든 주에는 교회들과 가정 모임들이 꾸준히 개척되면서 활발하게 사역이 진행 중이다.

데니즐리, 아이든과 기타 주들

주변 지역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더 많은 영혼들을 만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데니즐리에는 요한계시록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등 골로새 유적지가 있다. 몇 년 전에 가정교회가 개척되었고, 또 한 교회가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든은 에베소, 프리에네, 밀레도, 디디마 같은 주요 도시가 있었던 고대 이오니아 지역을 둘러싸고 있다. 이 지역은 풍부한 기독교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많은 교회들의 옛터들이 지금도 남아 있다. 아이든 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쿠샤다스, 쇼케, 디딤)에서 교회들과 가정모임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즈미르의 한 교회가 매주 **마니사**를 방문하면서 예배와 모임을 지속하고 있고 **아피온카라히사르**에는 이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있다. 그 외 **우삭**과 **퀴타히아**에는 교회가 없다.

지중해 권역



개관

이 권역에 복음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개척된 교회와 가정 모임들이 성장하고 재생산하게 하소서

사도행전의 밤빌리아(앗달리아, 버가), 길리기아(다소) 및 수리아(안디옥)가 이 권역에 속한다. 터키 전체 인구의 13%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긴 장화 모양의 8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도시와 농촌 모두 인구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 관광산업과 과일 생산으로 유명하다. 해발 평균 2천 미터에 이르는 토로스 산맥이 동서로 가로지르면서 북쪽으로 중앙 아나톨루 권역과 경계를 이룬다. 중심도시인 안탈리아, 아다나, 메르신, 하타이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하타이, 안탈리아와 기타 주들

안디옥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난민사역을 통해 많은 무슬림들이 구원 받고, 자신들의 종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하타이는 성경의 안디옥에 해당한다. 터키 내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는 150만 인구의 대부분이 밀집되어 있다. 시리아 내전과 ISIS 사태로 인해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이곳 난민캠프에 거주하고 있다. 2000년에 터키 정부의 합법적인 승인을 받아 세워진 안디옥 개신교회(담임: 장성호 목사)를 통해 복음전도, 난민사역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안탈리아는 연안의 평원 뒤로 토로스 산맥이 솟아 있는, 터키에서 가장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곳들 중 하나이다(인구 170만 명). 이곳에는 명목상의 정교회 교인들이 소수 거주하고 있으며 개신교 신앙공동체가 4군데 있다. 몇 년 전 정부에서 관광객을 위한 교회를 지어 주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 외 **부르두르, 으스파르타**에는 개척된 교회가 없다.



개관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차세대 영적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사도행전의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이고니온, 디모데의 고향 루스드라, 가이오의 고향 더베에 해당하는 권역이다. 13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다. 내륙 고원지대의 대륙성 기후로 인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무척 춥고 강설량이 많다. 남부의 코냐 평야와 북부 평야지대에서 곡물이 많이 생산된다. 소금 호수 동부의 크르쉐히르와 요즈가트 주변 지역은 사막화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가 이 권역에 속하며 앙카라 쿠르트루쉬교회(담임: 이산 외즈벡 목사), 바트켄트 블레싱교회(좌슈 웬츠 목사)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들에 교회 개척이 일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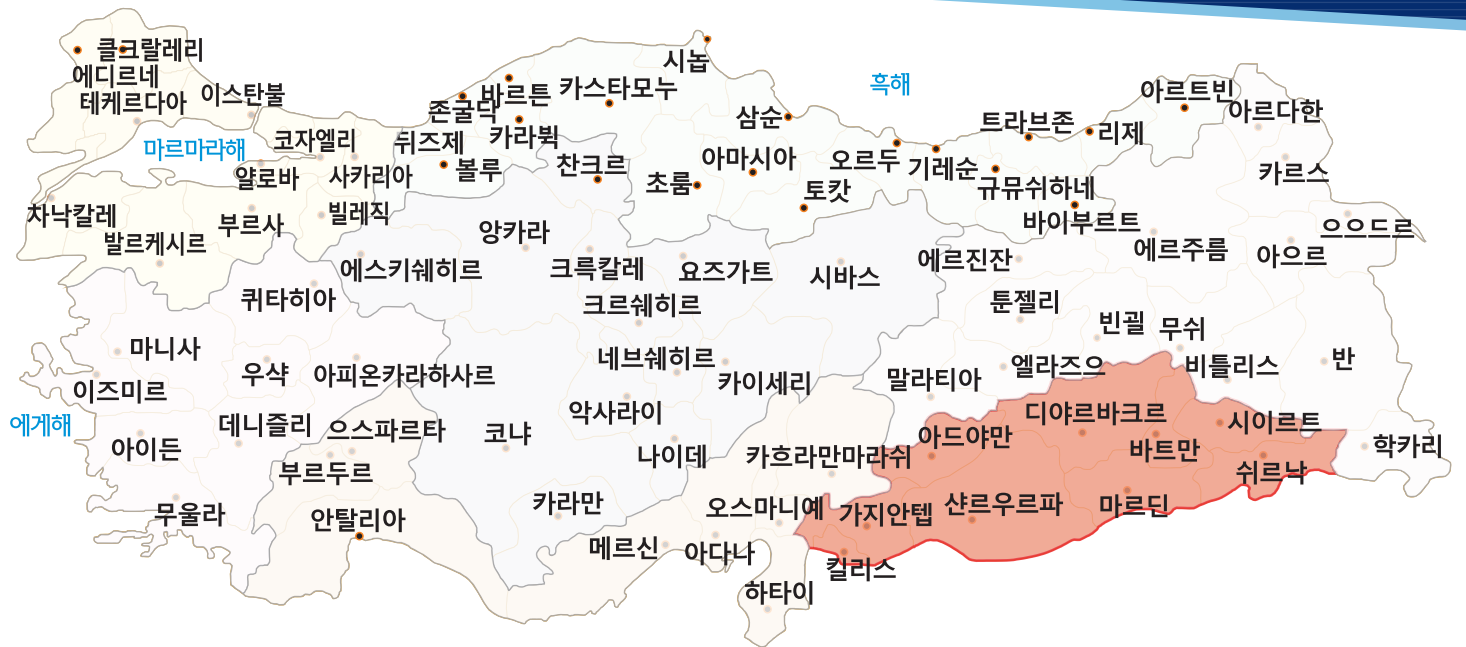
네브쉐히르, 카이세리와 기타 주들

박해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초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네브쉐히르는 고대 로마의 갑바도기아 주에 해당한다.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어 살던 지하도시, 계곡의 바위 동굴을 파서 만든 마을, 수도원 운동 시기의 바위교회와 벽화 등 많은 신앙의 유적들을 볼 수 있다. 이곳에는 가정교회와 소수의 가정 모임들이 있다.

카이세리에는 14세기 말까지 바위 수도원이 번성하였고 1920년대까지 많은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들이 거주했다. 현재는 명목상의 정교회 교인들과 주교들 소수가 이곳에 살고 있다. 그 외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전도여행 때 방문한 지역인 **에스키쉐히르**에는 현재 소수의 성도들과 3개의 교회가 있다.

크룩칼레, 크르쉐히르, 악사라이, 시바스, 카라만에는 교회가 없다.



수리아 정교회와 다른 소수 종파 기독교인들 사이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 이 지역 복음화에 기여하게 하소서

개관

성경의 하란 및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해당하는 권역이다. 초대교회 이후 안디옥에서 동방과 서방으로 기독교가 전파될 때 동방기독교의 중심지인 에뎃사 왕국이 있었던 곳이다. 9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쪽으로 시리아 및 이라크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동남부 개발 프로젝트(GAP)의 시범지역인 가지안텝, 디야르바크르 및 산르우르파에 개발 붐이 지속되면서 이곳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곳에는 수리아 정교회인들과 다른 소수 종파 기독교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2014년 ISIS의 공격으로 피난온 예지디, 시리아, 이라크 난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디야르바크르 개신교회(담임: 아흐멧 규베네르 목사)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교회 개척과 전도사역, 난민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가지안텝, 마르딘과 기타 주들

가지안텝 새생명교회가 주변 지역 복음화의 통로가 되고 이 지역 성도와 사역자들을 보호해 주소서

가지안텝은 19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신흥 공업지역이다. 이곳과 인근의 오스마니예에 공단이 많이 유치되면서 노동인력이 집중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가정문제, 자녀문제 등 도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인 P와 한국인 A 사역자 가정 중심으로 세워진 새생명교회가 부흥하며 여러 전도사역, 시리아 난민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다. **마르딘**에는 수백 가정의 정교회 교인들이 살고 있다. 특히 마르딘 남부에 있는 시리아 정교회 몰 가브리엘 수도원에서는 지금도 예수님 시절 아람어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디야르바크르 개신교회가 파송한 엔데르 사역자를 중심으로 교회 개척이 진행되고 있다. 그 외 **바트만**에는 가정교회가 있다. **킬리스, 시이르트, 쉬르낙**에는 교회와 사역자가 없다.



이 지역의 영적인 상황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지역으로 회복되고
과거와 같이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권역이 되게 하소서

개관

이 권역은 에덴동산이 있었고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알려진 아라랏산으로 유명하다. 15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고 독수리가 동쪽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이다. 시골 지역은 공업단지가 거의 없고 땅의 대부분이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인구가 크게 격감하고 있다. 초대교회 이후 많은 성도들이 거주하였고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동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텅 빈 교회들과 고대 교회의 흔적들만이 남아 있다.

반, 에르주름과
기타 주들

반 지역 이란인 교회와 쿠르드인 교회를 통해 교회가 없는 주변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많은 사역자들을 보내 주소서

반은 인구의 90% 이상이 쿠르드인들이다. 지난 2011년 2번의 지진 이후 오히려 더욱 발전하는 도시가 되었고 인구가 증가했다.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도 폐쇄적이다. 터키로 이주해 온 이란인 교회가 있어 난민들을 섬기고 있으며 주일에 약 50명의 성도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쿠르드인 교회 역시 매주 30명의 성도가 이란인 교회 건물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최근 교회 협의회 등록을 마치고 예배 장소 구입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에르주름은 인구 95만 명의 도시로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주요 거점지였다. 지금은 교회가 있지만 소수의 성도들만이 있다. **카르스 주**에는 앙카라에 있는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 그 외 **에르진잔, 툰젤리, 엘라즈으, 빈골, 무쉬, 비틀리스, 아르, 으드르, 아르다한, 학카리**에는 교회가 없다.



개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곳이 통일되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며 과거처럼 복음을 유통하는 거점으로 사용되게 하소서

사도행전의 구브로에 해당하며 사도 바나바의 고향이다.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세 개의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다. 1571년에 오스만제국에 의해 정복되었고 1878년 영국령이었다가 1960년 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오스만제국 당시 파견된 3만 명의 군인들을 시작으로 이곳에 터키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1963년-1967년 키프로스인들과 터키인들 사이에 일어난 전쟁에 그리스와 터키가 개입하게 되었다. 1974년 그리스계 민병대가 키프로스를 그리스에 병합시키려 하자 터키 정부가 군대를 파견하여 북쪽 40%를 점령한 후 합병하였다. 이후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북키프로스는 터키만이 인정하는 터키 공화국으로, 남키프로스는 EU(유럽연합) 회원국인 남키프로스 공화국으로 대치 상태를 이루며 2천여 명의 유엔 평화유지군이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통일 협상
재개 및
사역의 가능성

소수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사역자들에게 담대함과 새 힘을 주시며 사역과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소서

2015년 5월 12일-15일 남, 북 양측 대통령은 유엔 특사와 통일에 대한 업무회담에서 통일협상 재개의 신뢰 구축 조치로 북키프로스인의 남키프로스 입국비자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5월 29일에는 국경 2 곳을 더 개방하는 등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북키프로스의 터키인들은 정교회 국가인 그리스와 수세기에 걸쳐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를 기독교와 동일하게 여기며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인들 중 소수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와 모임이 파마구스타, 레프코시아, 기르네 등의 도시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터키 디야르바크르 개신교회를 섬기다가 비자 문제로 추방된 제리 매트릭스 사역자 역시 파마구스타에서 캠퍼스 사역 및 여러 전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모스크, 박물관으로 바뀌거나 터만 남은 고대 교회 건물들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이 땅에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개관

이스탄불은 원래 비잔티움이라는 그리스의 도시였으나 콘스탄틴 대제가 330년에 새롭게 도시를 세우고 콘스탄티노플로 명명했다. 기독교 비잔틴제국의 수도로 1천년 넘게 세계 기독교의 중심 역할을 했던 도시이다. 그러나 1453년 술탄 메흐멧 2세에게 정복당한 후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오스만제국의 수도이자 이슬람의 정치적 중심지가 되었다. 성소피아 교회는 이곳의 기독교와 이슬람의 역사를 보여준다. 비잔틴제국 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오스만제국 때는 가장 큰 모스크로 사용되었고 터키 공화국 이후 지금까지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3년 전 터키 정부가 성소피아 교회에서 이슬람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스탄불은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터키 내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 구직, 결혼, 교육 등의 기회를 찾아 국, 내외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개신교교회 사역

이스탄불 교회들과 성도들이 사랑과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터키 다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관문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터키 전체 개신교 6천 명 성도, 135개 교회 중 1/3이 이스탄불에 집중되어 있다. 이스탄불은 터키 대부분의 다른 지역들보다 종교의 자유가 많이 보장되는 도시이다. 영국 성서공회의 지부인 터키 성서공회와 출판부 및 서점이 여기에 있다. 2001년에 현대 터키어 번역이 마무리된 성경은 이곳을 통해 꾸준히 보급되고 있다. 이스탄불 전역에 꾸준한 교회개척이 시도되면서 다양한 인종, 계층, 직업을 가진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고 주변 지역 및 터키 동남부 교회개척에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스탄불 아나톨루 개신교회(담임: 레벤트 크란 목사), 새소망교회(담임: 잭 발론 사역자), 성경통신과정 사역이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또한 이란인, 아랍인, 일본인, 몽골인, 러시아인, 중국인, 중앙아시아인, 아프리카인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다.

관문도시 이즈미르



초대교회의 자취가 남아 있는 마니사 지역에 복음이 활발히 증거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성숙된 영적 지도자들을 더 많이 세워주소서

개관

요한 계시록의 7 교회 중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다. 에게해에서 가장 큰 항구이자 인구 4백만 (2014년 통계)이 넘는 터키 내 세 번째로 큰 도시이다. 터키 공화국 직전인 1922년까지 이 도시의 대다수는 그리스인이었고, 큰 복음주의 공동체가 있었다. 지금도 옛 교회건물들의 잔재가 드물게 남아 있고 카톨릭, 성공회 등의 건물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어 터키 타도시의 지역 주민들보다 교회에 대해 익숙한 편이다. 그러나 이즈미르에서 1시간 거리의 마니사 지역은 빌라델비아, 사데, 두아디라 등 초대교회의 자취가 남아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터키 서부지역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된 곳이다. 남쪽의 셀축 구는 에베소 고대도시로 유명한 지역으로 수양관, 교회, 기도의 집이 있다.

개신교교회 및 청년 사역

대학 캠퍼스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부흥이 있게 하시고, 이 지역 교회와 성도들 간의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즈미르는 유명한 관광지이자 매년 가을 국제 무역박람회 때 국내외 사업가들이 모이는 도시이며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교육도시이다. 국립대학 4개와 기타 7개의 대학들이 있다. 이즈미르 시내와 주변 도시들에서 해마다 대학생, 청년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청년 사역이 시도되고 있다. 이즈미르에서는 꾸준한 복음 전도 활동의 열매로 1993년에는 공식적인 건물교회가 1개였는데, 현재는 10개의 개신교교회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교회와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감에 따라 전도의 방법, 교리적 견해차로 인한 논쟁들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매달 모이는 터키 교회 대표들의 모임에서 이런 문제들이 논의되고 합의와 협력을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도시의 흐름에 맞는 다양한 사역들이 개발되고 이 일을 위한 전문적인 사역자들이 많이 파송되게 하소서

개관

성경의 갈라디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314년과 458년 두 차례 중요한 공의회가 이곳에서 열리기도 했다. 소아시아 반도의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교차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4개의 산들에 둘러싸인 분지이다. 인구는 470만 명으로 터키 내에 두 번째로 큰 도시이고 터키의 수도이다. 각국의 대사관들이 모여 있고, 8개의 대학교가 밀집해 있는 교육도시이다. 현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은 중앙집권적 권력을 강화하고자 대규모의 대통령 궁을 이곳에 신축하고 있다. 최근 급속도로 도시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서 오는 이주민들로 인해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영적 상황

역사적으로 종교성이 강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진리되신 예수님께 더욱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앙카라 쿠르트루쉬교회, 라디오 쉐마의 사역들을 축복하소서

히타이트 시대부터 아나톨리아 지방의 대지 여신인 키벨레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오스만제국 이후에는 소아시아 중부 지역의 이슬람 신비주의의 주요한 본산지 중 한 곳이었다. 현재는 터키 공화국의 설립자였던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묘지가 앙카라에 있고 그는 터키인들로부터 신적 수준으로 경배 받고 있다. 역사적으로 우상숭배와 종교성이 강했던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카라 시의 주요한 구마다 교회들이 개척되거나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앙카라 쿠르트루쉬교회(담임: 이산 외즈벡 목사)를 중심으로 기독교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인 필립푸스 사역, 대학생 청년 사역, 난민사역 등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이미 터키 다른 7개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다. 또한 앙카라 라디오 방송국 쉐마 역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다.

관문도시 아다나, 메르신



터키 내 연합중보기도운동을 인도하고 있는 움베르토 코엘로 목사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아다나

성경의 길리기아가 이곳에 해당한다. 인구 215만 명으로 터키에서 4번째로 큰 도시로 상업과 산업의 중심지이다. 서쪽에는 터키 남부에서 가장 복잡한 이철의 메르신 항이 있고, 동쪽에는 신흥 공업 지역으로 각광 받는 오스마니예가 있다. 주변 동남부 지역으로부터 직장을 찾아 몰려오면서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다. 1909년에는 이곳에서 수만 명의 아르메니아인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했고 1979년에는 미국인 사역자 데이빗 굿맨이 순교한 곳이기도 하다. 1985년에는 현지인 성도들과 외국인 사역자들이 체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아다나는 하나님의 복음이 힘 있게 증거 되면서 교회가 활발하게 개척되고 있다. 아다나 개신교회(담임: 움베르토 코엘로 목사)를 중심으로 연합중보기도모임, 교회개척운동, 난민사역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메르신

이곳에 터키 현지인 지도자들이 많이 양육되고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메르신 주에 위치한 타르수스는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 지역이다. 인구 170만 명으로 지중해 권역의 가장 큰 항구도시이다. 감귤류 및 각종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며 온화한 기후의 영향으로 동남부 지역으로부터 많은 인구가 이주해 오고 있다.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무다트 모스크는 거대한 6개의 첨탑을 자랑하며 이 지역 주민의 내재되어 있는 이슬람 신앙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아랍 정교회의 영향력이 강했던 곳으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외국인 사역자들에 의해 개신교회들이 꾸준하게 개척되며 성장을 보이고 있고 다소에는 가정교회가 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성경통신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무슬림들도 많아지고 있다.

관문도시 삼순



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고 민족성이 강한 이 지역에 만연한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편견이 바뀌고 이 땅 무슬림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서

개관

성경의 본도에 해당하며 아굴라의 고향이었던 지역이다. 주변 트라브존과 함께 흑해 권역의 대표적인 중심 도시이다. 인구는 약 136만 명이다. 오스만제국 말기에 일어났던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때 이 지역에서도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학살당했다. 터키가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되어 열강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무스타파 케말 장군(아타 투르크)이 이곳 삼순에 들어와 처음 독립전쟁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삼순 지역은 터키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민족성이 강하다.

흑해 지역 복음의 산실 삼순 아가페교회

삼순 아가페교회가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넓은 예배의 장소를 허락하시며
인근 소도시 교회 개척을 위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소서

삼순에 있는 아가페교회(담임: 오르한 피차클랄 목사)를 중심으로 흑해 지역에 복음 전도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삼순 아가페교회는 2004년 8월 30일에 창립되었고 2005년 11월에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허가를 받았다. 삼순 아가페교회는 민족성이 강한 주민들의 성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지만, 교회 방문자와 복음 관심자, 세례 받는 성도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주일 예배에 공간이 부족해 넓은 예배 장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삼순 주변의 소도시인 초룸, 기레순, 토캣, 아마시아, 오르두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그곳의 복음 관심자들과 성도들을 만나며 각 도시마다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역의 열매로 2015년 4월에 오르두에 아가페교회가 개척되었고 첫 예배를 드렸다.



이곳에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 믿음의 청년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20만 청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역자들을 보내주소서

개관

신약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디모데의 고향), 더베가 지금의 코냐이다. 사도 바울의 전도 팀을 통해 복음을 듣고 허다한 믿는 무리(행 14:1)가 있었던 이고니온은 초대교회 시대 비시디아 안디옥과 함께 소아시아 전도의 전략적 도시였다. 그러나 4세기 기독교 국교 칙령 이후 부패하게 되었다. 코냐시는 인구 170만 명으로 터키에서 7번째로 큰 도시이다. 지역 주민들은 매우 보수적이고 코냐 출신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갖는다. 코냐인들은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종말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설도 내려온다. 그러나 최근 늘어난 대학교들과 청년들, 인터넷 카페, 유선 방송 등의 영향으로 보수성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또한 시리아 난민과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들로 인해 국제도시가 되어 가고 있다.

메블라나가
아닌 하나님의
도시로

사역자들이 장기 거주비자를 받고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하소서

코냐는 아나톨리아 셀추크 제국의 수도(11-12세기)였고 이슬람 신비주의 학파 수피즘의 큰 흐름인 메블라나 사상과 철학(13-14세기)의 중심지로 지금까지도 유명하다. 터키의 유명한 전통춤인 세마 춤은 메블라나파의 신을 향해 나아가는 의식이자 신과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종교적인 춤이다. 강한 신비주의 이슬람의 영향으로 영적 싸움이 치열한 곳이며, 터키 정부가 장기 거주비자를 잘 내주지 않아 사역자들이 다른 도시로 흩어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어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한국어와 쿨트를 가르치며 복음의 접촉점을 찾는 사역이 활발하다. 또한 현지 성도들과 함께 1:1 전도, 성경통신과정 및 인터넷을 통한 복음 전도가 계속되고 있다.

관문도시 산르우르파



보수적이고 폐쇄적으로 이슬람을 믿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의 영적인 베일이 벗겨져
참된 진리를 보게 하소서

개관

구약의 하란, 밧단 아람으로 알려져 있는 유프라테스 강 동부 지역이다. 지역 주민들은 아브라함이 니므롯 왕 시대에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고, 욥도 여기서 살았다고 믿는다. 무슬림들은 아브라함, 욥,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선지자로 인정하며 이곳에 있는 아브라함 모스크, 야곱의 우물, 욥의 무덤 등으로 성지순례를 온다. 주민들은 종교적으로 매우 보수적이고 폐쇄적으로 이슬람 율법을 따르며 생활한다. 가족, 친족 중심으로 삶이 이루어지며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높아 문맹률과 조혼율이 터키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인구는 약 185만 명(2014년 통계)이다. 90년대 이후 실시된 GAP 프로젝트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경공업이 육성되면서 현재는 주변의 인구와 난민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교회의 역사와 우르파 교회

우르파 교회 성도들과 사역자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많은 무슬림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A.D. 1세기 이 지역에 에돏사 왕국이 있었고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이후 동방기독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10세기경까지 수리아 정교회의 중심지였고 한 때 이곳 전역에 약 2천-3천 개가 넘는 교회와 수도원들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고대 교회 건물들 중 일부는 모스크나 공공건물 혹은 학교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다. 이슬람 성지화라는 명목으로 고대 성도들의 무덤도 모두 없어졌다. 이 지역에 한 사역자 가정을 통해 2013년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현재는 세 사역자 가정과 한 싱글 사역자가 이 지역을 섬기고 있다. 우르파 교회에는 최근 하란 대학에 공부하러 온 몇몇 학생들과 소수의 성도들이 있다. ISIS의 공격으로 위험지역이 되면서 사역자들에게 거주비자를 잘 주지 않는 상황이다.

관문도시 디야르바크르



여러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복음의 빛이 비추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개관

동로마제국의 도시 중 동방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도시들 가운데 하나이다. B.C. 3천 년부터 앗수르, 로마, 비잔틴, 몽골, 오스만제국 등 현재까지 30여 개의 민족들에 의해 다스려졌었다. 1071년 말라즈기르트 전쟁 이후 다양한 투르크계 부족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현재 터키인, 쿠르드인, 아랍인, 자자인, 그리스인, 유대인, 수리아인, 이란인, 이라크인 등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다. 전체 인구는 약 160만 명이고, 터키 내에서 가장 많은 쿠르드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2015년 5월 말 메소포타미아 재단은 이곳에 터키 최초로 쿠르드 대학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대학은 2016년부터 강의를 시작하며 쿠르드어의 방언인 쿠르만지어, 디밀리어를 중심으로 터키어, 영어, 아르메니아어, 수리아어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대 교회와 디야르바크르 개신교회

디야르바크르 교회가 난민사역을 감당할 때 더욱 지혜와 강건함을 주시고, 남동부 권역 여러 캠프를 통해 성도들이 더욱 연합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게 하소서

7세기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 이곳에는 예지디교, 유대교, 그레고리안교, 수리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칼데아 정교회가 공존하고 있었다. 1차 세계대전 전후로 대다수가 떠나가 버리고 고대 교회 건물들만 남아있게 되었다. 한 때 상당수의 아르메니아인들이 거주하며 그들 가운데 강한 복음 전도 활동이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렸다. 2003년 4월 터키 남동부 권역 최초로 디야르바크르 개신교회 (담임: 아흐멧 규베네르)가 세워져 이후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고 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남동부 권역의 청년캠프, 어린이캠프, 가족캠프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주변 도시인 바트만, 마르딘에 교회를 개척했다. 2014년 5월부터 들어온 수만 명의 예지디인, 쿠르드인 난민들을 섬기며, 이를 돕기 위해 많은 단기팀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있다.

디아스포라
터키인 현황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터키인들에게 각 국의 교회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며, 터키 국내외 교회, 단체들이 연합하여 사역하게 하소서

터키 외무부에 따르면 해외 거주 터키인 인구는 약 5백만 명이다. 2014년 대선에서 처음으로 해외 거주 터키인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면서 2015년 총선에서 전체 해외 거주 유권자 2백 86만 6천 979명 중 1백 3만 4천 91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주요 거주 국가별 터키인 인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210만), 불가리아(110만), 네덜란드(29만), 프랑스(28만), 영국(20만), 북키프로스(18만 5천), 오스트리아(15만), 루마니아(15만), 그리스(14만), 중동과 북아프리카(14만), 사우디아라비아(12만), 북미(10만 3천), 호주(9만 5천), 스위스(8만), 벨기에(8만), 스웨덴(3만 7천), 마케도니아(2만 5천), 키르기스스탄(2천 2백), 핀란드(2천), 일본(1천 7백), 요르단(1천 6백), 그루지아(1천 2백), 스페인(1천), 한국(1천).

디아스포라
터키인
네트워크

터키인 디아스포라인들이 이슬람 포교의 전략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듣고 터키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터키의 이슬람계는 끊임없이 디아스포라 터키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슬람 세계화를 시도해왔다. 미국에 망명해 와 있는 페트홀라 굴렌은 민간 차원에서 종교 간의 대화와 교육 포교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낙쉬벤드 이슬람 종파는 정부 차원에서 DITIB(종교 문제를 위한 터키 이슬람 동맹)같은 기관 및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세계화를 진행 중이다. DITIB는 독일에 본부가 있고 1984년 종교부 산하 지부로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독일의 여러 이슬람 단체들과 함께 독일 내에 이슬람 대학 설립을 위한 서명 운동과 대정부 로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러 도시에서 모스크 설립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반면, 터키 디아스포라인들 가운데 성도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영국과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터키인 교회와 모임 등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최근 불가리아 내 터키인 사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도시 재개발 및 도시화의 문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자녀교육, 이혼율 증가, 가정폭력, 공중보건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역이 개발되게 하소서

2013년 5월 터키 정부는 도시 재개발법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법안을 통해 향후 2023년까지 1천 4백만 채의 주택이 재개발되고 터키 전역에 도시화를 위한 사무실과 20-30곳에 감독위원회가 설치된다. 재개발 대상은 1차적으로 생명과 재산 피해를 낼 가능성이 높은 무허가 주택, 지진 취약 건물, 노후 건물 등이고, 이스탄불, 코자엘리, 사카리아, 뒤즈제, 이즈미르 및 디야르바크르 등 위험성이 높은 지역들로부터 시작된다. 또한 터키 정부는 대도시 내의 전철과 지하철 확대 공사 및 주요 거점 도시들 간의 고속기차 연결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 움직임으로 인해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빈민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미성년자들의 전도 및 양육

주일학교 및 캠퍼스 사역을 위한 지도자가 양성되고, 교재 출판 및 전문화된 사역들이 개발되어 도시의 젊은 층들에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게 하소서

현행법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이슬람 외에 어떠한 종교적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한다. 만 18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에도 교내 서클활동이나 동호회 결성 등을 통한 캠퍼스 문화 형성이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러나 현재 앙카라와 이스탄불에서는 각 터키 교회의 주일학교 활성화와 교사 양성을 위한 캠프 사역 및 문서 사역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캠퍼스 사역도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성경적이고 건전한 문화를 제시할 수 있는 전문화된 사역의 개발이 더욱 필요하다.

전문 영역의 사역자 양성

전문영역에서의 창의적인 사역들이 많이 개발되어 복음전도와 연결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한 법적 제약과 사회적 장애들이 잘 극복되게 하소서

현재 터키는 선교사 비자를 따로 발급해 주지 않고, NGO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사역자와 단체들은 문서, 미디어, 교육, 헬스 케어, 음악, 스포츠, 지역개발, 관광, 비즈니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방법으로 전문인 사역을 시도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성경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터키 성도들이 건전한 성경적 경제관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사회에 복음적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무역, 중소 규모의 생산업, 컴퓨터 컨설팅, 커피숍이나 서점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나 헬스 케어는 의료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빈민층들에게 전인적 건강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지역개발의 경우 도시 인근에 농업지역 혹은 화훼단지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성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다.

문서 사역과 미디어 사역

문서, 미디어, 인터넷 사역을 위한 전문화된 일꾼들을 더 많이 세워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 더 많은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받게 하소서

터키어 성경은 17세기 오스만 술탄 메흐멧 4세의 명령으로 아랍어 철자로 된 오스만어로 처음 번역이 되었다. 1941년 라틴어 철자로 된 현대 터키어로 개정되었고 터키 성서공회를 통해 성경이 꾸준히 보급되고 있다. 터키인과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출판사에 의해 성경, 찬송가, 전도지, 성경공부 교재, 주일학교 교재 등이 꾸준히 개발되고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양질의 출판물을 만들 전문 인력의 부족, 성경교사와 지도자를 위한 신학, 주석 및 성경연구서의 필요, 일반 무슬림들을 위한 서적 개발 및 보급, 터키인 문서 사역자 양성 등의 과제들을 안고 있다. 터키어 예수 영화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가 보급되어 복음 전파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터키 국내 기독교 라디오 및 위성 방송, 웹사이트, 성경통신과정을 통해 많은 복음 관심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들을 지역 교회와 연결하는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다.

교회개혁 상황 ○

터키 정부가 취하고 있는 종교 정책들이 더욱 관용적으로 바뀌어 교회개혁이 활발히 진행되고, 터키 81개 주 전역에 건물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터키 내 교회개혁 사역의 가장 어려운 장애 요소는 터키 사회의 복음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인식, 개신교교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헌법 등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반감과 편견이 서서히 극복되고 있다. 2013년에 정부 지정의 종교부지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행위도 종교집회로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타 종교에 대한 모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주민등록증의 종교란 폐지를 위한 법도 제정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터키 전역에서 복음 관심자, 세례자, 가정교회, 건물교회가 늘어가고 있다. 2015년 현재 이스탄불에만 60여 개, 터키 전역에 약 135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 지난 10여 년(2000-2013) 사이에 교회 수가 놀랍게 증가했다.

교회 지도자 양성 ○

다양한 은사를 가진 많은 현지인 지도자들이 양성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및 기관들이 활성화 되게 하소서

터키 내 여러 지역에 가정교회와 건물교회가 늘어가면서 성도들을 인도할 성경교사, 전도자, 영적 지도자 양육이 시급하다. 현재 이스탄불에 3곳, 앙카라 1곳, 이즈미르 1곳에 신학교에 준하는 성경학교,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 외에도 성경통신과정, 캠퍼스 사역단체, 여러 출판사 및 사역자들이 자체 교육과정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이다. 특별히 미전도 지역 및 전도가 취약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전도자, 주일학교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가정교회를 인도하고 제자훈련 시킬 지도자, 교회가 없는 지역의 성도들을 돌볼 현지인 사역자들의 지도력 개발과 양성이 많이 필요하다.

터키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사역자들을 보호하시고,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영혼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역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1. 언어, 문화, 기후의 장벽을 기도와 말씀에 순종함으로 잘 극복하게 하소서
2.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모든 외로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3. 사단의 여러 전략들을 잘 분별하고 안정감과 성숙한 인격을 갖게 하소서
4. 날마다 성령의 가르침에 자신의 소욕을 복종시키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5. 영혼들의 영적인 필요를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 분별력을 주소서
6. 매일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나게 하소서
7. 하나님의 무한하고 값없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을 갖게 하소서
8. 수많은 사역과 영혼들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많이 갖게 하소서
9. 다른 사역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격려하고, 겸손함으로 연합하게 하소서
10. 늘 새 힘과 강건한 건강을 주소서
11. 복음 전도를 위해 오고가는 모든 여정을 안전으로 지켜 주소서
12. 사역자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사랑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하소서